

Chicago

최대 규모, 판매 호조, 시카고 아트페어

국내 화랑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 타진



'98 시카고 아트페어 박영덕화랑 부스 전경.
왼쪽부터 강애란·전광영·김창영·박현기·황영성·백남준 씨의 작품.

제6회 시카고 아트페어가 지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렸다. 22개 나라 2백9개 화랑이 참여, 규모 면에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시카고 아트페어는 스위스 바젤·프랑스 피악(FIAC)과 함께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

한국에서는 재작년에 이어 박영덕화랑이 참가했고, 가인화랑이 올해 처음 참가했다. 박영덕화랑에서는 백남준·황영성·박현기·전광영·김창영·임영균·도윤희·강애란 등 모두 8명의 작가가 참가해 7만 달러 이상의 판매 성과를 올렸다. 전광영·김창영 씨는 박영덕화랑을 통해 연 3년째 참가하는 작가들로서 독특한 작업 방식과 동양적 특색이 현대적 안목과 맞물려 시카고에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두 작가는 작년 시카고 아트페어에서도 콜럼버스에 위치한 갤러리 V에서 전시 초대를 받았으며,

올해도 시카고의 그랜드 제이 콰리치 갤러리의 99년 개인전과 올 11월 독일의 갤러리 도로시아 반데 콜른에 초대받았다. 또한 이 화랑을 통해 스위스 바젤 아트페어와 독일 콜른 아트페어에 작품을 출품한다. 가인화랑의 배병우·민병현·권부문 씨의 사진 작업과 장승택·최선명 씨 등의 회화 작품 역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시카고 아트페어는 한국 화랑들의 국제화된 경영과 국제 미술계의 진출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즉 한국 작가들이 외국 작가들의 작품과 비교해 볼 때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번 시카고 아트페어의 성과는 IMF 체제하에 극도로 위축된 국내 미술 시장에서 한국 미술의 국제화와 외화벌이 산업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

〈김진영·박영덕화랑 큐레이터〉

New York

평양 출신 재미작가의 '돌아오지 못할 다리'

민용순전(4. 18~6. 27 아트 인 제너럴)

평양에서 태어난 재미작가 민용순이 '돌아오지 못할 다리'라는 제목으로 뉴욕의 대안공간 아트 인 제너럴(Art in General)에서 전시를 열었다.

그 동안의 작품 경향인 성·인종·민족성 등의 주제와 그 맥을 함께 하는 이번 전시에는 S자로 굽어진 철조망 속에 간간이 끊어진 단어와 문맥이 섞여져 있고, 각 철조망 안에는 시계가 부착되어 각기 다른 시간대로 작동되고 있는 설치작품이 선보였다.

민용순은 이 설치작품과 <배꼽이 하는 얘기>, 군복으로 만들어진 한복을 통해 6·25와 분단 상황, 현재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뿐 아니라 미국의 다문화를 개념적으로 전달한다. 더욱이 그는 정치적 논의의 틀 안에서 한글과 영어의 모호한 결합을 통해 혼성적이고 양면적인 모습을 제시하면서, 1.5세대의 재미교포 한인화가로서의 정체성도 모색한다.

〈정연심·미술사〉



Courtesy Art in General. Photo Wilman Zahr

민용순 <돌아오지 못할 다리> 1997